

임용시험 후기

박유미(2001학번)

응시: 2005년 12월

근무지역: 곡성중

먼저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. 핑계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.. ^^;

저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합격한 경우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..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.

본론으로 들어가서,

제가 시험준비하면서 보았던 원서들의 목록입니다

:tbp, pllt, amlt, apple book, tp1t, an introduction to language , language assessment, English syntax , 그리고 인터넷강의 i035 팀에서 나온 여러 원서를 짜집기 해놓은 심화교재,
박현수 팀에서 나온 심화교재.

위의 책들을 스터디그룹(4명) 안에서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고(보통 20-30페이지) 각자 a4용지에 문제를 내와서(최대한 임용시험문제 형식과 비슷하게) 복사를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 저는 시험보기 1달전에 다시 쪽 훑어보았습니다.

별거 아닌것 같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

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i035' 팀'과 박현수선생님의 강의를 꾸준히 시험보기 며칠전까지 보았습니다. 방송 밀려서 다 못듣는 사람들도 많은데,, 저는 워낙 배속을 빠르게 해서 보아서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.

다른 건 몰라도 문제풀이는 꼭 들으세요. 실제 임용 시험 문제는 학원가 문제보다 쉽게 나오지만 답안 쓰는 연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.

출제경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,,

전국유형은 채점 하기 편하려고 하는지 거의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영어로 두문장 이상 서술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나오는듯..

assessment 에 대한 문제는 연달아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것 같습니다. 신경쓰셔야 할 것 같

네요.

제일 중요한게 답안 작성인데, 한마디로 말하면 key word 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단답형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지만, 서술하는 문제에는 이것저것 길게 쓰는것 보다 키워드를 넣어서 명확하게 써야 완전한 점수를 받습니다.

올해 시험볼때 저는 문제가 참 쉬다고 느끼면서 풀었는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 지문을 제대로 안읽고 풀어서 틀린 것이 있더군요.

솔직히 시험보는 사람들 머리속 지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, 얼마나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답안을 쓰는지 , 또 얼마나 긴장을 덜 하는지 이런 점들이 점수차를 벌려 놓습니다.

지금보다 9,10 월 쯤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 때 맘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같은 경우는 끝까지 원서를 놓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약본만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서 걱정하고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.

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네요. 원서를 읽는 습관때문에 일반영어문제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구요..

조급해하지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..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해요 도움이 되었길..